

# 조선시대 일월성신문경(日月星辰文鏡)의 제작과 특징

---

권주영

국립공원공단 문화자원부 계장, 미술사학 전공

mus1999@hanmail.net

---

- I. 머리말
  - II. 일월성신문경의 사례와 분석
  - III. 무속의례의 공간 변화와 무경(巫鏡)
  - IV. 일월성신문경의 무구화와 그 특징
  - V. 맺음말
-

## I. 머리말

---

동경(銅鏡)의 한 종류인 일월성신문경은 해, 달, 별 문양이 장식된 금속제 거울로 '일월대명두', '서천대명두' 등의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다. 동경은 조선후기에 유리거울이 등장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졌지만 일월성신문경은 유일하게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무당의 방에 걸린 무신도의 상단 중앙에 걸어 두거나 여러 점의 일월성신문경을 연결해 길게 늘어뜨려 장식하기도 하는데, 그 수량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개에 달한다. 때로는 임시로 개최되는 야외 굿판의 벽면에 걸어두는데 이는 무당이 모시는 신(神)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이 외에도 무당이 점사를 볼 때 쌀을 담은 그릇에 거울을 꽂아두기도 한다.<sup>1</sup>

무속에 사용된 거울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능화가 조선의 무구인 명도(明圖)로 소개한 바 있으며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과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에 의해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으며<sup>2</sup> 이후 무구의 한 종류로 알려지며 현존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이들 연구는

- 1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서울: 민속원,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전남, 전북, 제주도』(서울: 민속원, 2005); 한국무속학회, 『서울굿의 이해』(서울: 민속원, 2007).
- 2 이능화, 『朝鮮巫俗考』, 『계명』 제19호(1927);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京城: 大阪屋號書店, 1938); 아키바 다카시(저), 최길성(역), 『朝鮮巫俗의 現地研究』(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아키바 다카시·아카마쓰 지조(저), 최석영(역), 『조선 무속의 연구(상·하)』(서울: 민속원, 2008).
- 3 임동권, 「무경의 계보」, 『한국무속학』 제3집(2001); 양중승, 「무당 귀물(鬼物) 연구: 『삼국유사』의 삼부인(三符印)과 무당의 거울·칼·방울을 중심으로」, 『생활문물연구』 제22호(2001); 최진아, 「무구(巫具)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제10집(2005); 양중승, 「금성당 무속 유물의 형태와 상징성」, 『생활문물연구』 제24호(2009); 최승빈, 「한국 무속 명도의 기원과 전승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8); 최진아, 「천문의 상징 기호에 대한 이해: 무속의 상징물 명도를 중심으로」,

민속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여 공예품에 대한 분석과 제작 배경 등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명도(明圖 혹은 明斗)’로 분류되고 전세되고 있는 거울은 일월성신문경이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 국화문경, 화문경, 한경, 왜경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명도’가 특정 거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의례의 도구로 사용되는 동경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시사한다.

또한 무속에서 명도는 ‘명도(明圖)’, ‘명도(明道)’, ‘명두(明斗)’, ‘명두(鳴頭)’, ‘명도(名徒)’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그 의미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중·북부 지방에서는 무구로 사용되는 거울을 뜻하고 남부 지방에서는 태자귀(太子鬼)를 모시는 무당인 태주(太主)를 뜻한다. 이들은 서로 상이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무속의례에 있어 신령을 모시는 신체(神體)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범주로 이해된다.<sup>4</sup>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무경인 일월성신문경 90점을 중심으로 등장과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제작 배경을 이해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속의례 무구인 ‘명도’로 자리 잡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유리거울의 유행과 확산으로 의해 금속제 거울이 점차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월성신문경이 새롭게 등장한 점은 당시 무속의 시대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급속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일월성신문경을 통해 오늘날 현대 무속의례가 지니는 의미와 기능도 살펴보고자 한다.

---

『인문과학연구』 제41권(2020).

4 명도의 어원에 대해 손진태는 巫祖를 의미하는 몽고어 ‘밍두(mingdu)’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으며, 최승빈은 몽고의 무조신인 민뉘(Mingü)신의 명칭이 한국 무속에서 거울, 점쟁이, 그리고 기타 무속용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았다. 최승빈, 앞의 논문(2018), 71~75쪽. 즉 신령 그 자체, 혹은 신령이 깃든 신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은 무구가 될 수도 있고 무당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 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특정 현상을 의미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생각된다.

## II. 일월성신문경의 사례와 분석

일월성신문경은 경면(鏡面)이 볼록하게 두드러지고 배면(背面)의 중앙에 1개의 고리형 뉴를 달았다. 일반적인 동경에서 보이는 뉴좌나 계권 등의 장식적 형태가 보이지 않고 평탄면을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진다. 현재 총 90점의 사례가 확인되는데, 국공사립박물관의 여러 기관에 소장된 전세 품으로, 명칭은 '명도', '명두' '무당의 거울' 등으로 불린다. 직경은 매우 다양한데 작은 것은 8cm, 큰 것은 26cm 정도로 그 차이가 크며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부록 참조).

형태는 크게 원형과 병형(柄形)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문양은 일월과 성신문, 그리고 명문으로 구성된다. 일월문은 해와 달이 한 화면에 함께 장식되지만 단독으로도 장식된다. 성신문은 거울 상단에 7개의 원문이나 오각성문(五角星文)으로 새겨 넣었는데, 수량과 배치 양상으로 보아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표현한 것이다. 명문은 23점에서 확인되며 '일월대명두', '북두칠성', '호구명두', '일월명두' 등 한자와 한글 명문이 혼재한다.

거울의 크기에 대해 원형경을 중심으로 각각의 직경을 차트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나뉜다(그림1). I군은 8~15cm 미만, II군은 15~19cm, III군은 20~23cm, IV군은 24cm 이상에 해당하며, 수량은 I군 35점, II군 21점, III군 25점, IV군 9점으로 각 군집 내부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더욱 세분될 가능성도 있다.<sup>5</sup>

5 거울의 크기에 대해 모리 고이치는 대·중·소 3가지로 구분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동경은 직경 3cm 내외의 소형에서 1m가 넘는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각 거울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대·중·소의 구분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森浩一·松前健, 「鏡のもつ意味と機能」, 『日本古代文化の探求: 鏡』(東京: 社會思想社, 19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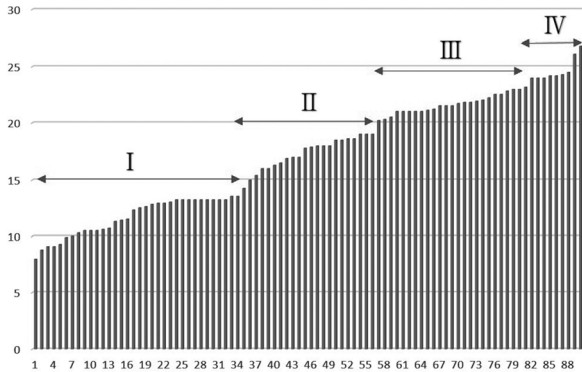


그림1-일월성신문경의 직경에 따른 분류

일월성신문경의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크기와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A·B·C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를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특징과 제작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A유형

A유형은 경면이 불룩하고 고리형의 뉴를 달았으며 중앙의 뉴를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원문을 좌우 및 상하대칭 구도로 배치하여 장식한 거울이다. 이 유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2점(44·45)이 해당하며 직경은 22cm 이상의 대형경으로 IV군에 속한다.

(a)는 중앙의 뉴를 중심으로 좌우 가장자리에 동일한 크기의 원문을 두어 서로 대칭되고 있다. 상단에 7개의 원문을 새기고 각각 선으로 연결하였는데 국자 형태를 띠고 있어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연상케 한다. 하단에는 6개의 원문을 일렬로 배치하여 대칭 구도를 이룬다. 화면 내부는 직경 0.3cm 내외의 작은 원문들이 성글게 채워져 있으며 왼쪽으로 치우쳐 '셔천드 |

표1-A유형

<p>(a) 일월성신문경, 직경 26.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p>(b) 일월성신문경, 직경 2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명두'의 한글 명문이 세로 방향으로 새겨졌다. 가장자리 4곳에 각각 작은 돌대가 세워져 있으며 높이는 0.5cm 정도이다. (b)는 중앙에서 약간 아래로 치우친 지점의 좌우 가장자리에 반원문이 상호 대칭되고 있다. 화면 상단에 8개의 원문을 국자 형태로 배치한 뒤 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이 또한 국자 형태의 북두칠성 별자리로 해석된다. 하단에는 직경 0.3cm 내외의 작은 원문들이 군집하여 채워져 있어 상단 문양과 대칭된다. 가장자리에는 별도의 돌대 없이 외연부가 약하게 도드라져 있다.

이 2점의 거울은 형태와 문양의 세부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문양의 구성과 내용은 동일 범주에 속한다. 무엇보다 여러 개의 원문을 선으로 이어 별자리를 형상화한 것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천체 표현 방식이며 특히 원문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별자리 표현의 특징이다. 이에 A유형에 보여지는 상단의 7~8개로 구성된 국자형 별자리는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것이며 하단의 3개 내지 6개의 원을 연결한 것은 남두육성 혹은 삼태성으로 이해된다.<sup>6</sup> 또한 좌우 가장자리의 원문 혹은 반원문은

6 양홍진, 「중국과 한국의 전통 천문도」, 『천문학논총』 제28권(2013), 48쪽.

천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해와 달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A유형은 해와 달, 별자리로 구성된 일월성신문으로 장식하여 천체를 표현한 금속제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일월성신문은 고대로부터 천체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중국 신화에서 ‘불의 기운은 태양이 되고 물의 기운은 달이 되었으며 해와 달의 넘친 기운이 성신(星辰)이 되었다’ 하며<sup>7</sup> 해와 달, 별이 한 화면에 배치된 장면은 천체를 의미한다. 가장 이른 사례로 중국 호남성 장사시 마왕퇴 1호 서한묘에서 출토된 비의(非衣)가 대표적이며<sup>8</sup>, 우리나라의 고구려 고분 천정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9</sup> 공예품으로는 후한 대에 유행한 화상석과 와당, 동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후로는 일월성신문으로 공예품을 장식하는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중국식 면복의 도입에 따른 ‘십이장 도상’의 수용과 관련된다. 『후한서』에는 천자의 복식을 제도화하여 유교적 예의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 달, 별의 문양이 포함되어 있다.<sup>10</sup> 『예기』에는 노나라의 임금의 깃발에 일월문을 사용했음이 언급되고<sup>11</sup> 『주례』에 묘사된 주례경도

- 
- 7 이에 대해 장기근, 『중국의 신화: 천지개벽과 삼황오제』(파주: 범우사, 1997); 장기근, 『중국의 신화: 후편』(파주: 범우사, 1999) 참조.
  - 8 비의는 길이 205cm의 帛畫로 위에서 아래로 천계와 인계, 지하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중 천계를 의미하는 최상단에 해와 달을 묘사하고 있다. 해와 달은 모두 둥근 원형으로, 상단 오른쪽에는 둥글고 붉은 해 안에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새가 위치하고, 왼쪽에는 은색의 둥근 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부에 두꺼비와 토끼가 함께 그려져 있다. 리송(저), 이재연(역), 『중국미술사 1』(고양: 다룬생각, 2011), 393쪽.
  - 9 일월문이 확인되는 고구려 벽화고분은 집안 지역 8기, 대동강 유역 19기 등 모두 27기에서 확인되는데 이중 20여 기에 성신문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진단학보』 제82호(1996), 1~34쪽;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파주: 사계절,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분벽화』(충북: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소, 2019) 등을 참조.
  - 10 『後漢書』志 輿服下(8), “日月星辰 山龍華蟲 作繪宗彝 藻火粉米 黼黻絺繡 以五彩章施於五色作服 天子備章”.

록(周禮經圖錄)의 '구기제도(九旗制圖)'에는 '대상(大常)'이라는 깃발을 일월성신문으로 장식하고 있다.<sup>12</sup> 이에 일월성신문은 권위를 상징하는 12개의 문양인 '십이장 도상(十二章 圖像)' 중 하나로 인식되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여러 국가로 전파되어 공유되었다.<sup>13</sup> 특히 조선시대에는 전례서를 통해 유교의 예적 질서를 정립하고자 노력했기에 조선 왕의 면복과 깃발에도 시문할 수 없었고 다만 궁중기물인 의물·의장·건축 등에 일부 장식된 사례가 전해진다.<sup>14</sup> 이에 고려시대 이후 일월성신문의 장식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천상열차분야지도》나 《혼천의》와 같은 천문도를 구성하는 기호로 사용된다.

천문도는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수많은 천문도가 사사로이 모사되거나 필사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또한 서양의 천문학적 지식이 유입되면서 새롭게 천문도가 제작되고, 실학자들에 의해 천문지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형화되고 간략화되어 널리 보급된다.<sup>15</sup> 당시 제작된 소형의 천문도로 《문성수분야도》, 《이십팔수도》, 《방성도》 등 다수가 알려져 있으며 《평혼의》, 《금동천문도》 등 금속제 관측기구도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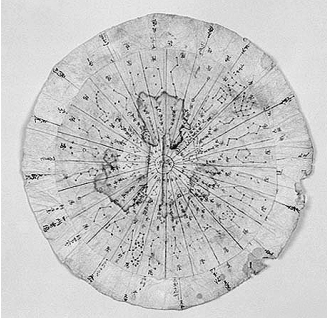
11 『禮記』 明堂位(3), “是以魯君 孟春乘大路 載弧緇 旗十有二旒 日月之章 祀帝于郊 配以后稷 天子之禮也”.

12 이준영(해역), 『周禮』(서울: 자유문고, 2002), 4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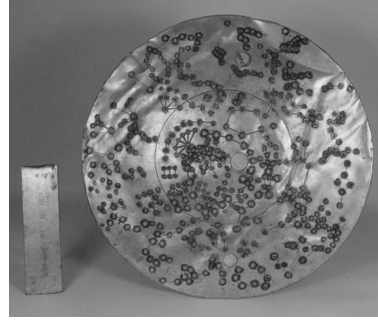
13 김주연, 『궁중의레미술과 십이장 도상』(서울: 소명출판 2018), 36~141쪽.

14 현존하는 사례로는 고려시대 《石製 帶裝飾具》에 장식된 일월문이나 조선 《日月五峰圖》, 《鐵製 金銀入絲 四寅斬邪劍》 등 궁중기물에 장식된 일월과 성신문이 있다.

15 문중양, 「조선후기 서양 천문도의 전래와 신·고법 천문도의 절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1호(2004), 37쪽;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서울: 고즈윈, 2008), 446~480쪽; 심중혁, 「예수회 중국 선교사들과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 『신학과철학』 제20호(2012), 90~91쪽.



《이십팔수도》, 지름 45.9cm,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銅天文圖》, 직경 41cm, 1652년,  
양산 통도사 소장

## 그림2- 조선후기 천문도 사례

특히 양산 통도사 소장 《금동천문도》는 직경 41cm, 두께 약 5.2cm의 금동제 원판으로 앞면에 천문도, 뒷면에는 송악도가 새겨져 있다. 앞면의 천문도는 총 481개의 원문을 각각 선으로 이어서 별자리 109개를 표현하고 각각의 별에 진주를 감입하여 장식했다. 이들 별자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28수와 대체로 일치하며, 뒷면에 짐작된 명문으로 보아 제작 시기는 1652년(효종 3)이다(그림2).<sup>16</sup>

조선후기에 제작된 소형 천문도와 금속제 천문도는 직경이 30~40cm 내외로 원형의 바탕에 별자리를 장식했다는 점에 있어 일월성신문경과 비교 가능하다. 일월성신문경은 재질과 내용에서 금속제 천문도와 유사한데, 별자리의 표현에서 북두칠성과 28수의 위치가 부정확하고 상당부분 생략되었다는 점에 차이를 보인다. 즉 일월성신문경은 천문 기호를 장식한 점에서 천문도와 유사하지만 과학적이기보다는 관념적 표현에 가깝다. 이는 조선후기에 천문이 길상문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현상과 관련 있을

16 뒷면의 명문 내용은 “順治九年壬辰九月 三角山文殊庵比丘尼 仙化子造成”이며 이에 대해 부산박물관, 『장영실과 과학의 나라 窮理』(부산: 부산박물관, 2010), 26쪽 참조.

것으로 생각되는데, 1678년(숙종 4)에 상평통보의 주조 및 발매와 함께 유행한 《별전》이나 《민화》에서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별전은 길상과 벽사와 관련된 문자나 문양으로 장식되어 왕실이나 사대부의 패물이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중 일월·삼태성·칠성 등이 문양으로 등장하여 당시 별자리가 길상문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즉 조선후기에는 서양식 천문도와 함께 새로운 역법과 기술이 전해지면서 천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소형 천문도가 유행했고 《금동천문도》와 같은 금속제품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천문학이 일반에게 보급되면서 천체의 표현은 길상문의 하나로 수용된다. 이에 A유형의 일월성신문경은 적어도 17세기 이후 소형 천문도의 유행과 일월성신문의 길상화의 영향으로 등장하여 천문도와 유사한 형태로 장식되다가 점차 간략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B유형

B유형은 원문으로 해와 달, 별을 표현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6~7개의 별자리와 1~2개의 해와 달을 새긴다는 점 이외에는 천문도식 표현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한다. 18점의 일월성신문경이 이 유형에 속하며 ‘호구명두’, ‘불사에일월명두’ 등의 한글 명문과 함께 ‘日月大明斗’라는 한문 명문이 등장하고 크기 또한 I·II·III군으로 다양해진다(표2 참조).

〈표2〉를 살펴보면 (a-1)은 오른쪽 상단에 7개의 원문을 국자형으로 배치했지만 각각의 원문을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새겼다. 왼쪽 상단에 새겨진 4개의 원문은 十자로 연결되어 별자리로 추정되는데 전통 천문도의 38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이다. 명문은 ‘술명두디신에쇼 신말명 강지만’, ‘불사에일월명두’로 무속의 신을 의미하는 한글로 새겨져 있다. (a-2)는

17 박민일, 「朝鮮別錢의 美學과 精神史」, 『강원문화연구』 제19집(2000), 13쪽.

가장자리를 둘러 6~7개의 원문을 배치하고 나머지 면은 거칠게 정면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3점 중 1점은 거울면에 '호구명두'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2점에는 종이에 묵서로 '불스삼발', '도 | 신명두'라 각각 적어 거울면에 붙여 장식했다. (b)는 오른쪽에 16개의 반원문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왼쪽에는 '일월대명두(日月大明斗)'를 새겼으며 중앙의 뉴 주변으로 점문을 눌러 찍어 성글게 채워넣어 장식했다. 천문도와 같은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유분방한 구성을 보인다. 원문과 점문의 수량은 대동소이하고 명문 또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c)는 다양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규칙성을 보이는데 좌우에 일월문을 배치하고 한쪽 면에는 성신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식화된다.

표2-B유형

			
(a-1) 일월성신문경, 직경 20.5cm, 구파발 금성당 소장	(a-2) 일월성신문경, 직경 19cm, 구파발 금성당 소장	(b) 일월성신문경, 직경 17.8cm,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c) 일월성신문경, 직경 21.8cm, 사머니즘박물관 소장

B유형은 6~7개의 원문을 국자형태로 배치하거나 크기를 달리하여 천체를 형상화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천문도와와의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a-2)와 같이 가장자리를 둘러 원문 6~7개를 배치하는 문양은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한 국화범자문경과 동일하다. 국화범자문경은 원문 내부에 '국화범자문경'을 새겨넣고 주변에는 작은 국화문을 성글게 채워넣어 장식하는 거울이다. 고려 말에 등장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상당 기간

제작되고 복제 및 방제되어 사용한 거울로 약 40여 점의 유적 출토 사례가 있으며 생물연대가 확실한 김흠조(1461~1528)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sup>18</sup>

이 점은 B유형이 생활 공예품인 동경을 무경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문과 문양을 덧새겨 방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경을 제작하는 방법은 거꾸집을 제작하거나 밀납으로 모형을 만들어 주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주물사(鑄物砂)에 기존의 동경을 모본으로 삼아 눌러 복제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 경우 동경의 문양은 상당부분 흐트러지지만 짧은 시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명문이나 그림을 덧붙여 제작하는 방제 또한 손쉽다. 실제 고려~조선시대 유적 출토품은 대체로 복제 및 방제품에 해당하여 당시 주물사를 이용한 제작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 초, 무라야마 지준과 아키바 다카시의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국화문경에 '일월대명두(日月大明斗)' 명문을 덧새긴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화범자문경이 일월성신문경과 함께 사용된 사례, 그리고 국화문경을 들고 있는 무녀의 사진 등이 전해진다(표3 참조).

표3- 일제강점기 '명두'로 사용된 동경 사진

		
<p>'일월대명두'가 새겨진 국화문경, 황해도 해주, 秋葉隆·赤松智城 촬영, 12.1×16.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p>국화범자문경(좌)과 일월성신문경(우) 강원도 고성, 秋葉隆·赤松智城 촬영, 12×16.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p>국화문경을 든 희천무녀, 송석하 촬영, 6.2×8.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18 권주영, 「조선시대 건물지 유적 출토 거울 연구」, 『한국중세고고학』 제8호(2020), 129쪽.

즉 B유형은 기존의 복잡한 천문도를 탈피하여 일월문과 복두칠성을 단순한 원문으로 구성하면서 도식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 생활용 거울을 방제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sup>19</sup> 또한 만명, 불사, 호구 등 무속의 신령이 명문으로 덧새겨지는 것으로 보아 점차 무속적 색채가 강해짐을 짐작케 한다.

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무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조선시대 유적에서 무령(武靈) 혹은 대신칼과 함께 동경이 공반된 사례가 있다. 발굴조사 출토 동경은 매납 방법과 위치에 따라 그 쓰임새와 해석이 다양하지만 무령과 대신칼은 무구의 대표적인 공예품이므로 공반된 동경 또한 무구 중 하나로 해석된다. 출토된 사례는 17점으로 쌍용문경, 국화문경, 국화문병경, 범자문병경, 왜경 등 다양한 종류이며 크기는 3.5cm에서 26.7cm로 편차가 크다.<sup>20</sup> 유적의 분포는 전국적이지만 서울·경기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물이 매납된 시기는 공반유물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과주 덕은리 1호 수혈에서 쌍용문경과 함께 송원통보와 청송원보가 출토되었으며<sup>21</sup>, 서울 은평 진관동, 원주 반곡동, 전주 마전, 청주 주성리 유적에서는 조선시대로 편년되는 손가락과 백자가 출토되었다.<sup>22</sup> 함양 황곡리 출토 범자문병경은 손잡이의 길이가 경면 직경의 1/3 미만으로 시기적 편년에 따라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sup>23</sup> 이외의 유적 또한 대체로 조선시대에 단기간 조영된 분묘군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시기적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19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심방의 울쇠에서도 관찰되는데, 여러 점의 소형 동경을 엮어 제작한 이 무구는 국화문경에 '일월대명두'를 새긴 조선경, 고경을 방제한 한경, '천화'와 家紋이 있는 왜경, 무문의 소형 동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쇠에 대한 내용은 김현선,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민속학연구』 제12호 (2003) 참조.

20 국내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에서 출토된 동경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번호	유적명	유구명	출토 유물
1	경기 포천 구읍리유적	2지점 5호 토광묘	국화문경 4점, 무령(손잡이 2개와 방울 7개)
2	경기 안산 신길동유적	3지점 41호 토광묘	국화문경, 무령(손잡이1개와 방울4개)
3	경기 김포 마송유적	1지점 15호 토광묘	국화문경, 대신칼 2점
4	서울 은평 진관동유적	C공구 II-2구역 24호 토광묘	국화문경, 무령(방울24개), 구슬 179점, 청동손가락, 용도미 상 철기
5	경기 용인 농서리유적	I-B-2지역 1호 토광묘	무문경, 무령(손잡이 2개와 방울10개)
6	경기 파주 덕은리유적	1호 가마 인근 수혈	쌍용문경, 철술, 무령(방울), 은제동곳, 송원통보, 청송원보, 구슬
7	강원 원주 반곡동유적	10지점 114호 토광목관묘	국화문경, 범자문병경, 무령(방울 18개), 대신칼 2점, 청동반 지, 청동손가락, 구슬일괄
8	충북 청주 용정동유적	II-14호 토광묘	국화문경, 무령(방울 29개), 대신칼 2점, 토제장식품, 구슬 82점, 철제고리 5점
9	충북 청원 주성리유적	1지구 230호 토광목관묘	국화문경, 범자문경, 범자문병경 2점, 백자잔, 유개백자병, 청 동집게, 청동징, 청동손가락, 무령, 구슬 17점, 목제품
10	전북 전주 마전유적	1구역 1호 토광묘	송학문경(왜경), 무령(방울 6개), 청동손가락
11	경남 함양 황곡리유적	1지구 29호 목관묘	범자문병경, 대신칼, 청동반지, 구슬 26점

이에 대해 중앙문화재연구원, 『恩平 津寬洞 墳墓群(II)』(성남: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우리문화재연구원, 『咸陽 黃谷里 遺蹟』(창원: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호남문화재연구원, 『전주 마전유적(I·II)』(담양: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기호문화재연구원, 『龍仁 農書里遺蹟』(안성: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고려문화재연구원, 『安山 新吉洞 遺蹟(II)』(안산 신길지구 문화재 발굴(시굴조사)』(하남: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기호문화재연구원, 『金浦 馬松遺蹟(I·II·III)』(안성: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주 용정동 중세 분묘 유적』(청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한강문화재연구원, 『원주 반곡동유적(1·2)』(부천: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국방문화재연구원, 『파주 덕은리 유적』(서울: 국방문화재연구원, 2013); 국방문화재연구원, 『10년의 발자취』(서울: 국방문화재연구원, 2017); 중부고고학연구소, 『화성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부지 내 화성 양노리·쌍학리·내리·천천리 유적』(수원: 중부고고학연구소, 2018); 한국고고인류연구소, 『포천 구읍리 유적 1·2지점』(인천: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21) 보고서 참조.

출토된 거울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반복된 복제로 인해 형태와 문양이 흐트러지는 경향을 보이며 때로는 문양을 덧새기거나 변형하고 지우는 등 방제하여 제작된 거울이다. 이 점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조선시대 유적의 거울의 양상과 동일하다.<sup>24</sup> 무구는 일반적인 공예품을 무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한 공예품을 무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공예품은 대체로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매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무속의례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거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일상 생활용품이었던 동경을 그대로 무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3. C유형

C유형은 해와 달, 명문은 선으로 표현하지만, 별은 오각성문으로 변화하며, 명문은 모두 ‘일월대명두’, ‘칠성명두’, ‘복두칠성명두’ 등이 한자로 표기된다(표4 참조). 소형인 I군에서 대형인 IV군까지 모든 크기의 거울이 확인되며 현존 사례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 C유형의 특징적인 문양인 오각성문은 중앙에서 5개의 가지가 뻗어나온 서양의 펜타그램(pentagram)

- 
- 21 분묘 내 古錢의 출토 사례는 여말선초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승일, 「고려시대 주전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 35~82쪽 참조.
  - 22 함께 출토된 손가락은 모두 술부와 병부의 곡률이 매우 낮아 시기적으로 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정의도, 『한국 고대 손가락 연구』(파주: 경인문화사, 2014) 참조.
  - 23 권주영, 「여말선초 梵字文柄鏡 연구」, 『중헌 심봉근박사 고회기념논문집』(부산: 세종문화사, 2012), 363쪽; 엄기표,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제58호(2016), 35~82쪽.
  - 24 출토된 거울은 실생활에서 사용한 공예품으로 추정되며 국화문경과 범자문병경이 대표적이며 왜경과 한경의 복제경, 기타 방제경 등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권주영, 앞의 논문(2020), 135~137쪽 참조.

으로 1895년에 근대 육군의 복식이 도입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문양이다. 국내 유입 이후 대한제국기 동안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 문양으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의 군복 옷깃 자수와 도금된 별문양 장식품 사례가 알려져 있다.<sup>25</sup> 무엇보다 C유형의 거울은 크기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세된 거울 중에는 2점 내지 3점이 명주실로 엮여 있는 사례가 있어 여러 점의 거울을 함께 장식하면서 직경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거울 경면 가장자리에 생(生), 시(時), 성명과 ‘수명장수’ 또는 ‘소원성취’ 등으로 이루어진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는 종교 의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원문으로, 특정 인물의 기원을 담고 있다. 명문이 확인된 사례는 9점이며 이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1점(39)에는 ‘1971 정원십사일 조경휘’라 새겨져 있어 비교적 최근까지 일월성신문경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유형에는 (b)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병형(柄形)의 일월성신문병경이 확인되는데 경면은 볼록하고 배면에는 오각성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손잡이는 입주상 형태이다. 이러한 손잡이 형태는 고려 말에 등장하여 조선시대에 유행한 범자문병경과 국화문병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26</sup> 이 거울은 형태가 상당히 흐트러져 양쪽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배면과 손잡이 상면 처리가 매우 거칠고 조약하며, 오각성문 7개의 크기와 위치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통해 다른 거울을 모본으로 해 문양을 덧새긴 방제경으로 판단된다.

25 이지수·이경미,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육군 복식의 상징 문양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70권 제4호(2020), 3쪽.

26 권주영, 앞의 논문(2018); 엄기표, 앞의 논문(2016).

표4-C유형

	
<p>(a) 일월성신문경, 직경 20.2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p>(b) 일월성신문경, 길이 21cm, 직경 10.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즉 C유형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별을 오각성문으로 장식한 거울은 곧 무경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세부적인 형태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화된다. 오각성문은 19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하여 오늘까지 사용되는 문양으로 C유형의 단계에서 일월성신문경의 문양으로 수용되면서 정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금속제 거울은 조선 후기에 유리거울이 유입된 이후 점차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월성신문경이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하여 무구로 정착된 것은, 당시 유리거울의 등장과 함께 금속제 거울이 쇠퇴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해당 거울이 단순히 장식을 위한 목적보다는 무속의례를 위한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거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27 금속제 거울을 제작하는 전문 장인인 鏡匠의 명맥이 점차 사라지고 일반 대장간에서 제작된다는 점 또한 형태와 크기의 다양화를 가속화하였으며 거울의 소재 또한 동(銅) 이외에 철(鐵),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 Ⅲ. 무속의례의 공간 변화와 무경(巫鏡)

조선시대 무속의례는 크게 국행의례와 민간의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행의례는 국가나 왕실에서 행한 별기은, 기우제 등과 같이 국가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열린 의례이고, 민간의례는 사회 전반에서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치병, 점복, 통과의례 등이 있다.

무속의 국행의례는 국가 주도의 행사로,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별기은이 대표적이다. 별기은은 성수청의 주관하에 국무당에 국무를 파견하여 시행한 국행의례로, 신사와 무당을 별도로 두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건국 후 성리학 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제반 제도를 정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교, 도교 및 민속신앙과 그에 따른 전례는 음사로 규정하여 정리했다. 이에 유교의 정통의식이 강화되고 법제가 정비되면서 개국 초기부터 시행되던 공식적인 무속의례는 점차 사라진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 국가에서 전조의 잘못을 이어받아 덕적, 백악, 송악, 목막, 감악, 개성 대정, 삼성, 주작 등지에 봄과 가을에 따로 기은을 하였는데 ... 내시별감으로 하여금 향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전한다.<sup>28</sup> 즉 1411년, 별기은은 더 이상 무당이 주관하지 않고, 내시별감이 파견되어 분향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또한 『명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세종 때 음사는 이미 혁파되었고, 축수제는 성종, 기신제는 중종 때 혁파되었다.<sup>29</sup>

정기의례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무속의 국행의례는 기우제가

28 『太宗實錄』 11년(1411) 7월 15일, “命禮曹定德積紺岳開城大井祭禮 先是 國家承前朝之謬 於德積 白岳 松岳 木覓 紺岳 開城大井 三聖 朱雀等處 春秋祈恩 每令宦寺及巫女司鑰祀之又張女樂 至是 上曰 神不享非禮 令禮官博求古典 皆罷之 以內侍別監 奉香以祀之”.

29 『明宗實錄』 2년(1547) 5월 26일, “世宗以爲 淫祀 已盡革之 而此事猶存 此不過爲寡人祈福也 雖必獲福 亦爲非矣 況不可必獲乎 卽命革罷 又有祝壽齋 朱溪副正 深源請去之 成宗亦命去之 齋則中宗始革之 凡此祖宗朝故事 皆今日之所當法也”.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군주는 유교적 천인감응설에 따라 이를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러므로 가뭄은 유교·불교·무속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만 했고, 이중 석척, 화룡과 토룡, 폭무, 취무 등은 승려나 무당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우제는 용신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술성이 강한 의례라 할 수 있는데, 조선초기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만 점차 성리학적 체제 속에 정비되면서 방법과 성격이 변화한다.<sup>30</sup> 문헌기록에 의하면, 무속적 의례에 대해서는 『연산군일기』를 통해 성수청에 국무를 두는 전례가 그때까지 지속되었지만<sup>31</sup> 1516년(중종 11)에 법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금하게 하고<sup>32</sup> 1647년(인조 25)에는 기우제를 무당이 아닌 해조(該曹)로 하여금 향과 축문을 하게 했다.<sup>33</sup> 1687년(숙종 13)에는 동서활인서에서 치병 활동을 하던 무당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지방 관아에서 아무(衙巫)로 활동하며 그 명맥을 유지였다. 그러나 1895년 갑오개혁에 의해 무세(巫稅)가 폐지되면서 무속의 공식성은 사라진다.<sup>34</sup>

이처럼 개국 초기부터 시행되던 공식적인 무속의례는 유교의 정통의식이 강화되고 법제가 정비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민간 차원의 행사로 주변화

- 
- 30 최중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안산: 일지사, 2002), 99~162쪽; 최중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32~40쪽; 최중성, 「조선 전기의 종교문화와 무속」, 『한국무속학』 제11집(2006), 10쪽.
- 31 『燕山君日記』 9년(1503) 5월 1일, “持平權憲啓 昨傳曰 星宿廳置國巫 其來已久 臣等亦非欲革國巫也 此巫多以妖妄 惑愚民心 請治其罪 …”.
- 32 『中宗實錄』 9년(1516) 11월 15일, “… 上曰 巫覡之風 頗似盛行 法司禁斷 …”.
- 33 『仁祖實錄』 25년(1647) 4월 12일, “江原監司柳恒 黃海監司洪瑑馳啓 曠乾日甚 請令該曹別降香祝 以爲設祭祈雨之地 上從之”.
- 34 조선시대 무속의 정비 과정과 변화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 이태진, 「士林派의 留鄉所 復位運動」, 『한국사논문선집 4』(서울: 일조각, 1983); 림학성, 「조선시대의 巫稅制度和 그 실태」, 『역사민속학』 제3호(1993); 이필영, 「조선 후기의 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 제53권 제4호(1993); 손태도, 「조선 후기의 무속」, 『한국무속학』 제17집(2008).

된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무속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의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민의 전통적인 신앙의식에 기반한 성황제, 전염병이 돌거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때의 별신제, 그리고 상업 시장에서 열린 마을굿 등의 형태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신앙성은 약화된 반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오락적 요소는 강조되어 차츰 세속화되었다.<sup>35</sup>

무속의 민간화에 따라 의례공간 또한 변화를 보이는데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산천, 야산, 시장의 광장 등 임시적이고 개방적인 장소가 중심이 된다. 이 점은 의례공간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무구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때로는 무당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굿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체로 일상생활의 공예품을 그대로 가져와 무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일시적으로 마련된 현장에서 일회성이 강한 종이류의 무구가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다만 무당이 거처하는 생활공간인 무당의 방은 일반 사람의 조상을 모시는 위호가 설치되고 조상의례가 행해졌으며, 병이 발생할 경우 피병의 공간으로도 기능했다. 그러므로 무당의 집은 무당이 거처하는 일상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갖는 공간이 된다. 오늘날의 무속의례에서 정기의례는 사라지고 야외나 굿당, 굿청 등 임시 공간에서 일시적으

35 손태도, 「조선 후기 연희의 소통과 향유」,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3권(2014), 283~359쪽.

36 현대 무속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강신무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세습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무구의 종류 또한 무당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일회성과 한계성은 조선시대에 성수청과 국무가 사라진 이후 특정 신당에 소속되지 않아 의례공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공간적 제약과 제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간취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의례공간에 대해 임재해, 「공간민속으로 본 한국인의 상징체계: 문체제기, 최인학(저),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징체계(상): 공간민속·정신민속』(서울: 민속원, 1998), 11~69쪽; 한국종교민속연구회, 『종교와 의례공간』(서울: 민속원, 2007), 44~46쪽 참조.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당의 방을 꾸미는 공예품은 과거 무당의 의례 공간을 되짚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무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록부터 확인되지만 대체로 방울, 북, 나발, 와고 등 소리를 내는 악기류로 무당의 춤과 노래와 함께 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37</sup> 무속에 사용된 거울, 즉 무경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기록에서부터 확인되는데 『연산군일기』의 돌비石乙非라는 무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돌비는 당시 국무로 불리며 내수사(內需司)를 통해 부적을 제작하거나 왕실의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는데, 거울을 방 가운데 걸고 말하기를 ‘신이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못 본다.’ 했다.<sup>38</sup> 이후 19세기의 기록에는 거울을 사용하는 특정 무당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만명신(萬明神)을 모시는 무당의 무리들로 ‘크고 볼록한 거울’을 벽에 걸고 ‘명도’라 불렀다.<sup>39</sup> 즉 무속의례의 주요

37 『後漢書』(85) 東夷列傳(75), “馬韓 … 又立蘇塗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 『晉書』(97) 列傳(67) 四夷, “馬韓 … 又置別邑 名曰蘇塗 立大木懸鈴鼓”; 『三國志』(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列傳, “馬韓 … 名之爲蘇塗 立大木縣鈴鼓 事鬼神”; 『三國史記』(24) 百濟本記(2) 古爾王 5년(238), “五年春正月祭天地用鼓吹”; 『翰苑』 注 所引 括地志, “百濟四仲之月 祭天及五帝之神 冬夏用鼓角 奏歌舞 春秋奏歌而已 解陰陽五行 用宋 元嘉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2) 古律詩 老巫篇, “丹青滿壁畫神像 七元九曜以標額 … 瓦鼓喧聲無我耳”; 申翊聖, 『樂全堂集』(1) 詩 七言古體, “住寶滿座衆樂作 鼓靈瑟兮迎群神 神之來兮風颯颯 紛進拜兮神無言 中有一巫稱善舞”; 『肅宗實錄』 22년(1696) 1월 15일, “且以光陵寢園之不遠 別設一卓 指擬於不敢言之地 揚鈴擊鼓 褻慢無嚴”; 金壽恒, 『文谷集』(3) 詩(193), “南隣簫鼓巫迎鬼 北里香燈替說經”; 尹拯, 『明齋遺稿』(20) 書(12) 與朴和叔 庚午(1690) 4월 13일, “且後書所謂神後之巫鼓云者”; 丁若鏞, 『與猶堂全書』(5) 政法集(2) 經世遺表(2) 冬官工書(6), “樂器則大而鍾鐃 小而僧磬巫鈺”.

38 『燕山君日記』(49) 9년(1503) 4월 29일, “乙丑 … 持平權憲啓 此巫多術 掛鏡房中 而曰 神在其中, 人自不見 有鑰器曰 是飯佛之器 又能符祝以惑衆”.

39 李瀼, 『星湖僊說』(4) 萬物門 城隍廟, “村巫崇奉萬明神民有疾厄輒禱之 … 奉之者必畜大鏡 鏡必穹面”; 李瀼, 『星湖僊說』(13) 人事門 下禡亾魂, “又見國俗好事鬼有曰萬明者 卽新羅金庾信之母也 必爲中凸大面鏡有曰 王神者似指首露王”; 『五洲衍文長箋散稿』 巫覡辨證說, “金庾信母爲萬明神 … 今巫女之呪稱萬明而祀之萬明神祠必掛銅圓鏡號曰明圖云”.

무구는 예로부터 소리를 내는 악기류가 중심이며 거울을 사용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등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무당의 방 한쪽 벽면에 걸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어떠한 종류와 형태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무구로서의 거울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적어도 19세기에는 주요 무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 IV. 일월성신문경의 무구화와 그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속에서 동경을 벽에 걸어 의례를 행하는 것은 16세기 초의 기록에서 확인되며 이후 19세기에는 벽에 걸린 동경을 '만명신'이라 부르는 특정 무당 집단이 등장한다. 이때 동경의 형태나 문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떤 거울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무속의례에서 동경을 벽에 거는 행위가 언제부터인가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존하는 무경 중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 일월성신문경이 17세기 이후 등장한다는 점은 적어도 이 거울이 무속의례의 목적으로 제작되고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A유형의 거울은 당시 널리 유행한 소형 천문도에 기반하여 무속적 색채가 강한 일월성신문으로 장식하여 새롭게 창출한 것으로 생각된다.<sup>40</sup>

---

40 일월성신은 천지신명과 함께 한국 고유의 민속신앙, 무교에서 모시는 신령이다. 무속의 신관 형태는 다신적 자연신관으로 그 종류는 273종에 달하는데 이중 일월성신은 하늘을 의미하는 자연신 계통의 대표적 신령이다. 일월성신에 대해 무라야마 지준과 아키바 다카시는 천계에 사는 최고의 존재인 천상령(天上靈)으로 설명했으며 조흥윤은 선관·보살 계급의 최고의 무들이 모시는 신으로 삼신제석·불사·칠성 등을 꼽아 이들이 최고 신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김태곤, 『韓國巫俗研究』(서울: 집문당, 1981), 280~285쪽; 아키바 다카시·아카마쓰 지조(저), 최석영(역), 앞의

이후 보다 손쉬운 제작과 보급을 위해 B유형과 같이 일반 생활용품을 복제와 방제하는 과정에서 도식화되고,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오각성문을 수용하면서 C유형으로 정형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속의례가 국가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민간의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물로 해석되며, 무속의 주변화에 따른 무구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유리거울의 유행과 확산에 의해 금속제 거울이 점차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류의 동경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는 무속의례의 연희화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무속은 민간의례가 중시되면서 가시적 효과를 위해 시각적으로 표상되는 구현물과 공연적 요소가 필요했고, 타 종교의 의례 행위와 도구를 받아들이며 무단하게 융합하며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례를 담당하는 무당, 즉 샤먼(Shaman)은 샤머니즘(Shamanism)의 의식을 행하는 자이다. 샤머니즘은 시베리아의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일대의 원시신앙으로, 자연을 경배하고, 주술적 직능자를 통해 초자연과 연결하는 종교 현상 또는 복합 형태이다. 샤먼은 신들림이라는 트랜스(trance) 상태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엑스터시(ecstasy), 또는 혼이 들어오는 포제션(possesion) 상태를 유지하는 자로, 이에 대한 종교학적 연구 범위도 폭 넓으며<sup>41</sup> 무당의 명칭 또한 샤먼, 무격, 영매, 미꼬 등 다양하다.<sup>42</sup> 시베리아

---

책(2008), 72~74쪽; 조흥윤, 『한국의 巫』(서울: 정음사, 1983), 95쪽; 최진아, 앞의 논문(2020), 29~31쪽.

41 김태곤, 「한국 샤머니즘의 정의: 샤머니즘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무속문화』(서울: 박이정, 1998), 4~9쪽, 165~169쪽.

42 무당은 巫, 巫人, 巫覡, 巫女, 盲覡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대체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무당을 '단골' 또는 '당골', 남자 무당을 '재인'이라 부른다. 중부지방에서는 무당을 '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른다. 서북지방에서는 '무당'이라 부르고 남자 무당을 '점술'이라 부르는 곳이 많다. 이 중 '무당'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민정희, 「朝鮮前期 무당의 呼稱과 種類」, 『역사민속학』 제10호(2000), 84쪽.

와 몽골에는 아직까지 원시종교의 형태를 유지하는 샤먼들이 남아 있고, 이들은 무복을 입고 춤과 음악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고대 문헌에서 북, 나발, 방울 등의 악기류가 등장하는 점과 공통된다. 전통 무복에는 소형의 금속판이나 동경이 매달려 있는데, 샤먼이 춤을 출 때 서로 부딪쳐 소리가 나게 하여 신의 위력과 영험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며, 민속학 분야에서는 이를 한국의 무속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sup>43</sup>

실제 동경은 동아시아에서 청동기시대 등장한 이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대 이후 도안식 문양이 회화식으로 변화하고, 7~8세기 이후 원형 이외에 화형·방형·능형·병형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한다. 동경은 빛을 반사하며 사물을 비추는 기능성과 함께 인간의 사상과 예술품의 취향, 사회적 유행 등 시대 변화와 긴밀하게 관계하며, 생활·장식·장례·예물·정표·종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sup>44</sup> 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는 거울은 이른 시기부터 불교와 도교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의례에서 동경을 사용하는 사례는 불전 장엄구, 불교 의식을 위한 경단(鏡壇), 사리장엄구, 복장물, 진단구 등이 알려져 있으며 실제 불탑의 사리장엄구와 복장물로 발견된 사례가 상당수 전해진다. 확인된 거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특정 거울에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보아 불교 의례용 동경은 경전에 의거하여 별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43 내몽고 자치구 호하호트시의 내몽고박물관에 샤먼의 동경이 전세되고 있다고 전한다. 시베리아와 몽골 등 동아시아 무구 자료에 대해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서울: 예전사, 1975), 30~31쪽; 임동권, 앞의 논문(2001), 137~141쪽; 하정숙, 『韓·日 銅鏡文化의 샤머니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224~287쪽;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의 원본을 찾아서: 남강 김태곤 수집자료 사진전』(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4), 224~287쪽 참조.

44 동경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난영, 『高麗鏡 研究』(부산: 도서출판 신유, 2003); 치동광·서윤경, 「거울과 환영: 唐代 銅鏡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24호(2007); 권주영, 앞의 논문(2012); 정수희, 「고려 雙龍文鏡의 계보와 용도」, 『미술사연구』 제36호(2019b); 최주연, 『高麗銅鏡研究』(서울: 학연문화사, 2021)를 참조.

이 매우 높다.<sup>45</sup> 밀교경전인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타라니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는 거울을 사용해 경단을 세우고 도량을 차리거나 거울을 이용해 신성한 장소를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당대의 《돈황 23굴》과 《돈황 31굴》 벽화에는 동경을 경단 위에 세우거나 토단 정상부 혹은 건물 위에 설치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타이완 국립고궁박물원의 《대리범상도권》, 일본 에도시대의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타라니경》 목판화 등에는 동경으로 장식된 경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3 참조). 즉 불교 의례에서는 이미 당대부터 거울을 경단 위에 세우거나 특정한 장소에 걸어 불교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로 만드는 용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 의례용 거울로 고려의 《선각불상문경》과 원대의 《준제진언명경》이 대표적이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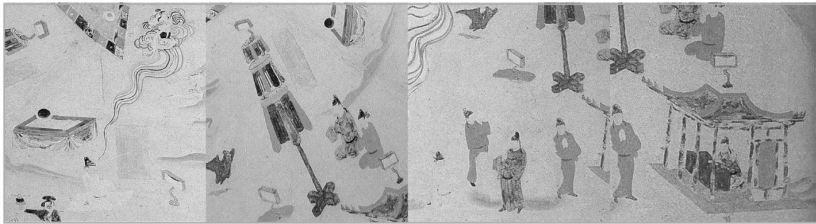


그림3-《돈황 31굴 벽화》부분, 경단 설치 모습, 756~781년<sup>47</sup>

45 정수희, 「고려시대 銅鏡과 불교문화」,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a), 209~270쪽.

46 우주옥, 「高麗時代 線刻佛像鏡과 密敎儀式」, 『미술사학』 제24호(2010), 12~13쪽; 박진경, 「准提 修行儀軌와 儀式具로 제작된 銅鏡」, 『불교미술사학』 제24권(2019), 153~155쪽; 최주연, 「高麗時代 線刻佛像文鏡의 傳來와 製作要因」, 『문화사학』 제53호(2020), 170쪽.

47 우주옥, 앞의 논문(2010), 13쪽.

한편 도교 의례에서는 동경을 사방에 두고 신을 비추어 보거나, 기우제 등에 사용했다. 도교의 법기로 알려진 사례로는 당대 말기에 제작된 팔괘문경이 대표적이다. 팔괘문경은 도가의 팔괘오행설이 형상화된 거울로 주문양은 팔괘이며 보조문양은 산천·일월·간지·십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완 국립고궁박물원의 《천지합위명오악팔괘문경》과 《원장부함명팔괘성상문경》, 절강성 절강성상우현문화원의 《천상경》 등은 도교 경전인 『도장』의 《상청함상검감도》와 《상청장생보감도》에 묘사된 법기 도안과 대체로 일치하여 도교의 의식구로 사용된 것임이 확실시된다(그림4 참조).<sup>48</sup>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7세기 기록인 『해동전도록』에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벽에 오래된 거울을 걸어둔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동경을 통해 일정한 공간을 도량으로 만드는 용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a-1) 《上清含象劍鑿圖》에 수록된 법기 중 제1거울 도상  
 (a-2) 天地含爲銘五嶽八卦文鏡, 晚唐, 청동, 16.5cm, 北京故宮博物院 소장  
 (b-1) 《上清長生寶鑿圖》에 수록된 법기 중 제3거울 도상  
 (b-2) 天象鏡(拓本), 唐, 청동, 24.7cm, 浙江省上虞縣文化 소장

그림4-《상청장생보감도》에 수록된 법기 도안과 전세 동경

오늘날 무속의례의 공간에는 한쪽 벽면에 일월성신문경을 원색의 천으로 연결해, 세 개 또는 일곱 개를 걸어 장식하고 있다. 이때 세 개를 걸면

48 李星明, 『唐代墓室壁畫研究』(陝西: 陝西人民美術出版社, 2004), 216~220쪽.  
 49 『海東傳道錄』 丹書口訣(9), “丹坐寶之後 必以外魔爲戒 屏書天篆 壁懸古鏡 亦豎寶劍 則凶邪外魔 自然退去”.

삼불제석명두, 일곱 개를 걸면 칠성명두라 부르며 이에 대한 해석은 신이 깃든 신체를 의미하거나 신의 뜻을 반영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일상적인 공간을 성역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점은 '거울이 곧 신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사상적 배경과 의례와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데, 무속이 고대로부터 한국인의 기층문화로 존재하면서 다른 종교와 부단하게 습합현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sup>50</sup>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기물인 동경을 무구로 받아들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무속의례는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음식로 치부되고, 무당의 공식성과 함께 의례 공간 또한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에 일상적 공간이나 자연적 공간에서 무속의례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무당은 일시적이거나 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금줄을 치거나 거울을 거는 행위 등을 통해 의례공간을 성역화하여 의례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공간인식을 이끌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전국 무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울을 무구로 사용하는 무속인의 분포는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며, 특히 황해도 지역의 강신무 중심으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sup>51</sup> 이를 통해 거울을

50 한국인의 기층문화와 타 종교와의 습합현상에 대해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황무시, 「무구의 상징체계: 무구의 기능을 중심으로」, 최인학(저),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징체계(중): 시간민속·물질문화』(서울: 민속원, 1998); 최문기, 「한국 무(巫)와 종교의 습합」, 『윤리연구』 제1권 제76호(2010);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파주: 한길사, 2012), 671쪽 참조.

51 민속학 조사에서 신체로서의 명도는 김유신의 어머니인 말명을 상징한다는 설과 최영 장군을 상징한다는 설로 나누어진다. 쇠걸립과 내림굿을 통해 명도를 신체로 모시는 대표적인 무당으로 우옥주, 김금화 등 황해도 출신의 강신무 계열이 알려져 있는데 현존 사례 또한 대체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하는 강신무 중심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국립민속박물관, 『큰무당 우옥주 유품』(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5), 187쪽; 김금화(구술), 홍태한(조사·면담), 김영광·송봉화(사진), 『김금화-에라 만세 놀구나요』(전주: 국립무형유산원, 2017), 52, 179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서울: 민속원, 2005), 74, 213~214쪽; 한국무속학회, 앞의 책(2007), 276,

무구로 사용하는 전통은 내륙지방의 강신무 중심으로 그 연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황해도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반정 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숙종 대부터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난 민중운동으로 승려 처경(處瓊)과 여환(呂還), 무당 원향(元香)과 차충걸(車忠傑) 등을 중심으로 도참사상을 공유하고 무속과 불교를 수용한 민중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들은 ‘이망정흥(李亡鄭興)’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생불’을 내세웠으며 황해도 서흥도호부 부원릉사와 서도신사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변란 유형의 민중운동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사건은 조선후기 민중운동의 배경 속에서 각각의 종교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점진적 습합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sup>52</sup>

황해도 지역에서 전개된 민중사상이 일월성신문경의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이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동경이 무구화 되는 현상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불교와 도교와의 습합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산악과 성수 신앙은 불교와 도교를 만나 꾸준히 변용과 습합이 이어졌는데 특히 조선후기에는 사찰 공간에 산신각과 칠성각이 건립되었고, 치성광여래 도상에는 자미대제와 수노인이 등장하는 등 여러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53</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속이 조선왕조를 경과하면서 불교 및 도교와

287, 308~309쪽 참조.

- 52 최선혜, 「조선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 사건」, 『역사학연구』 제50호(2013), 147쪽; 고성훈,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제47호(2015), 120쪽.
- 53 정진희,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습합(道佛習合) 연구: 도선암 본 『태상현령복두본명연생진경』을 중심으로」, 『한국학』 통권 제154호(2019), 107~109쪽;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와 민간신앙의 공존양상: 산신·칠성 신앙의 불교화」, 『불교학연구』 제61호(2019), 75~104쪽.

상호교섭하며 스스로 성리학적 이념의 공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종교들과 부단하게 융합 현상(syncretism)을 통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1800년대 제작된 『무당내력』에는 이전까지 찾아보기 어렵던 무속의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정 곳에 대한 복식과 무구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조선후기를 거쳐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형태의 무속의례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일월성신문경 또한 명도로 자리 잡으며 독특한 한국의 무구로 탄생하고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 V. 맺음말

---

이상으로 무속의 주요 무구 중 하나인 명도(혹은 명두)라 불리우는 일월성신문경에 대해 유형별 분류 및 제작 시기, 그리고 현대 무속에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월성신문경은 현재 90점이 전하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A유형은 원문으로 해, 달, 별을 표현하고 별자리를 선으로 잇는 천문도식 표현을 따르고 있다. 17세기에 소형 천문도가 유행하고 일월성신문이 길상문으로 사용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이는 무속이 국가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고 민간화되는 배경에서 새로운 무구를 제작하며 다양성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B유형은 천문도식의 별자리 표현에서 벗어나 해와 달, 북두칠성으로 구성되면서 도식화된다.

---

54 홍태한, 「『무당내력』류 이본의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32호(2016), 219~242쪽; 안현주·조우현, 「『巫黨來歷』의 巫堂 神格과 巫服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69권 제4호(2019), 141~160쪽.

때로는 화장구인 동경에 ‘일월대명두’, ‘서천대명두’ 등의 명문을 추가로 새겨넣어 방제하기도 하는데, 무속의례의 공간이 임시적이고 개방적인 장소가 되면서 일상 공예품을 그대로 무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후 C유형은 19세기에 유입된 서양의 펜타그램(pentagram) 문양을 수용하여 별을 오각성문으로 표현하고 정형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일월성신문경은 17세기 이후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복제나 방제되면서 점차 문양이 도식화되고 19세기에는 오각성문으로 장식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된다. 조선후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유리거울의 유행과 확산에 의해 금속제 거울이 점차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월성신문경이 새롭게 등장한 점은 무속의례의 연희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무속은 민간화되면서 가시적 효과를 위해 공연적 요소가 필요해졌고 다른 종교들의 의례 행위와 도구를 받아들이며 무단하게 융합했다. 불교와 도교의 종교 의례에서는 예로부터 ‘거울이 곧 신체(神體)’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동경을 사용했는데, 무속은 조선시대에 음사로 치부되면서 주변화되었고 종교적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관념부터 의례 행위, 도구에까지 광범위한 습합현상을 거쳤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무속의례가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일월성신문경 또한 명도로 자리 잡으며 독특한 한국의 무구로 탄생하고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무구 중 하나인 일월성신문경에 대해 제작시기와 배경을 포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구로서 거울의 역할과 의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현상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또한 불교와 도교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심도깊이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오늘날 현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무속이 점차 강신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요 무구인 명두, 특히 일월성신 문경의 사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이러한 사례와 자료가 쌓인다면 다양한 관점과 분석을 통해 무구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부록〉 일월성신문경 현황

번호	소장처	수량	직경 (cm)	평면 형태	문양				비고
					日	月	星辰	銘文	
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4641)	1	24.3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日月大明斗	
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4642)	1	21.1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北斗七星	
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4643)	1	20.2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日月大明斗	
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4644)	1	16.3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北斗七星明斗	
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8056)	1	23	원형	원점문	원점문	오각성문	-	
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8057)	1	21	원형	원문	원문	오각성문	-	
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8058)	1	13.5	원형	-	원문	원문	-	
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8088)	1	21.5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	
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8089)	1	12.3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1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8090)	1	10.5	병형	-	-	오각성문	-	전체길이 21cm
1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11382)	4	① 24, ② 24, ③ 21.5 ④ 18.5	원형	원문	원문	오각성문	① 日月大明斗 ② ③ ④ -	길이 155cm의 천에 3점 연결, 경면에 발원문 음각
1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11383)	4	① 21.5, ② 21.2, ③ 22.5 ④ 16	원형	원문	원문	오각성문	-	길이 155cm의 천에 4점을 연결
1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67295)	1	23	원형	원문	원문	오각성문	-	
1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67296)	1	22.5	원형	원문	원문	오각성문	-	
1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67297)	1	12.5	원형	원문	반원문	오각성문	-	

번호	소장처	수량	직경 (cm)	평면 형태	문양				비고
					日	月	星辰	銘文	
1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69838)	1	17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北斗七星明斗	
1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3)	3	① 24.5 ② 21 ③ 18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① - ② 日月大明斗 ③ 日月大明斗	여러 가닥의 무명실로 3점 고정, 중앙에 붉은 주머니가 매달림
1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4)	3	① 24 ② 19 ③ 15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① 日月大明斗 ② 七星明斗 ③ 七星明斗	여러 가닥의 무명실로 3점 고정
1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5)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6)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7)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8)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29)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30)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31)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32)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33)	1	13.2	원형	-	-	오각성문	-	
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34)	1	11.5	원형	-	반원문	원문	-	
2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3135)	1	10.7	원형	원문	반원문	오각성문	-	
3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75)	1	21.8	원형	미상	미상	미상	-	경면에 '무자생 이군임 3월 19일생 소원성취' 음각

번호	소장처	수량	직경 (cm)	평면 형태	문양				비고
					日	月	星辰	銘文	
3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76)	1	18.5	원형	-	미상	미상	-	경면에 '갑신생 이승재 소원발원' 음각
3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77)	1	10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	
3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78)	1	10.5	원형	미상	미상	미상	-	
3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79)	2	① 12.8 ② 10.3	원형	-	① 원문 ② 원문	① 오각성문 ② 오각성문	-	크기가 다른 2점을 붉은 끈으로 고정
3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80)	2	① 26.1 ② 22.8	원형	-	① 반원문 ② 반원문	① 오각성문 ② 오각성문	-	크기가 다른 2점을 붉은 끈으로 고정, ①에 '구자인', '김인수 5세 11.29. 생수 명장수 발원' 음각
3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4571)	2	① 22.2 ② 21.0	원형	-	① 원문 ② 원문	① 오각성문 ② 오각성문	-	크기가 다른 2점을 끈으로 고정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1)	1	12.9	원형	원문	반원문	오각성문	-	경면에 '정미생 10월 21일 김신수 수명 장수 발원' 음각
3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2)	1	12.9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경면에 '김순재 기해생 9월 27일 소원성취 수명 장수 발원' 음각
3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3)	1	18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경면에 '1971 정월십사일 조경희' 음각
4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4)	1	18.6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경면에 '무자생 이군임 3월 19일생 소원성취 발원' 음각

번호	소장처	수량	직경 (cm)	평면 형태	문양				비고
					日	月	星辰	銘文	
4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5)	1	21.7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경면에 '김원재 정유생 8월 12일 소원성취 수명 장수 발원' 음각
4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6)	1	24.2	원형	원문	원문	오각성문	-	경면에 '무자생 이군임 3월 19일생 소원성취 발원' 음각
4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77177)	1	15.4	원형	-	-	원점문	-	
44	국립중앙박물관 (동원1829)	1	26.8	원형	원문	원문	원문	서천도   명두	
45	국립중앙박물관 (신수5729)	1	23.2	원형	원문	원문	원문	-	
46	국립중앙박물관 (증5507)	1	9.1	원형	-	-	원문	-	
47	국립중앙박물관 (증5508)	1	10.5	원형	-	-	원점문	日月大明斗	명문 반전
48	국립중앙박물관 (증5560)	1	8.8	원형	-	-	원문	-	
49	속초시립박물관 (6771)	1	21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50	속초시립박물관 (6772)	1	18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51	옛길박물관 (문경새재박62)	1	16	원형	원문	반원문	오각성문	北斗七星明斗	
52	옛길박물관 (문경새재박63)	1	8	원형	-	원문	오각성문	北斗七星明斗	
53	사머니즘박물관1	1	21.9	원형	-	원문	원문	-	
54	사머니즘박물관2	1	9.9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배면에 '칠성'을 음각으로 새김
55	사머니즘박물관3	1	11.4	원형	원문	원문	원점문	日月大明斗	
56	사머니즘박물관4	1	20.3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日月大明斗	
57	사머니즘박물관5	1	11.3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번호	소장처	수량	직경 (cm)	평면 형태	문양				비고
					日	月	星辰	銘文	
58	사머니즘박물관6	1	16.5	원형	-	반원문	변형 오각성문	-	
59	사머니즘박물관7	1	9.1	원형	원문	반원문	원문	北斗七星 南斗六星	
60	사머니즘박물관8	1	9.3	원형	원문	반원문	원문	日月明斗 韓氏	
61	사머니즘박물관9	1	10.6	원형	원문	반원문	오각성문	-	
62	사머니즘박물관10	1	16.9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	
63	사머니즘박물관11	1	14.2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64	사머니즘박물관12	1	17.9	원형	-	원문	오각성문	-	
65	사머니즘박물관13	1	21.8	원형	-	반문	원문	-	
66	사머니즘박물관14	1	12.6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七星明斗	
67	사머니즘박물관15	1	13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七星明斗	
68	사머니즘박물관16	1	13.5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69	사머니즘박물관17	1	21	원형	-	반원문	원점문		
70	사머니즘박물관18	1	24.2	원형	-	반원문	오각성문	日月大明斗	
71	사머니즘박물관19	1	18.6	원형	원문	반원문	오각성문	日月大明斗	
72	사머니즘박물관20	1	17.8	원형	-	-	오각성문	日月大明斗	
73	금성당1	1	22	원형	-	원문	원문	솔명두디신에 쇼 신말명 강지만	
74	금성당2	1	20.5	원형	-	원문	원문	불사에일월 명두	
75	금성당3	1	17	원형	-	-	원문	호구명두	
76	금성당4	1	19	원형	-	-	원문	-	‘ㄷ   신명두’ 목서명 한지를 배면 부착
77	금성당5	1	19	원형	-	-	원문	-	‘불스삼발’ 목서명의 한지를 배면 부착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朝鮮王朝實錄』. 『三國史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海東傳道錄』.  
金壽恒, 『文谷集』.  
李瀾, 『星湖僊說』.  
申翊聖, 『樂全堂集』.  
尹拯, 『明齋遺稿』.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禮記』. 『晉書』. 『春秋』. 『翰苑』. 『後漢書』.

###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서울: 민속원, 2005.  
\_\_\_\_\_, 『남한의 고분벽화』. 충북: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  
소, 2019.  
국립민속박물관, 『큰무당 우옥주 유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5.  
\_\_\_\_\_, 『한국문화의 원본을 찾아서: 남강 김태곤 수집자료 사진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4.  
권주영, 「여말선초 梵字文柄鏡 연구」, 『중헌 심봉근박사 고회기념논선집』. 서울:  
세종문화사, 2012.  
김금화(구술), 홍태한(조사·면담), 김영광·송봉화(사진), 『김금화-에라 만세 놀구  
나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2017.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서울: 고즈윈, 2008.  
김주연, 『궁중의레미술과 십이장 도상』. 서울: 소명출판, 2018.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서울: 집문당, 1981.  
\_\_\_\_\_, 『韓國民間信仰研究』. 서울: 집문당, 1983.  
리송(저), 이재연(역), 『중국미술사 1』. 고양: 다룬생각, 2011.  
무라야마 지준(저), 최길성·박호원(역), 『조선의 무격』. 서울: 민속원, 2014.  
부산박물관, 『장영실과 과학의 나라 窮理』. 부산: 부산박물관, 2010.

- 아키바 다카시(저), 최길성(역), 『朝鮮巫俗의 現地研究』,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 아키바 다카시·아카마쓰 지조(저), 최석영(역), 『조선무속의 연구(상)·(하)』. 서울: 민속원, 2008.
- 우리문화재연구원, 『咸陽 黃谷里 遺蹟』. 창원: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 이난영, 『高麗鏡 研究』. 부산: 도서출판 신유, 2003.
- 이능화(저), 서영대(역주), 『조선무속고』. 파주: 창비, 2008.
- 이두현, 『韓國巫俗과 演戲』.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파주: 한길사, 2012.
- 이준영(해역), 『周禮』. 서울: 자유문고, 2002.
- 임재해, 「공간민속으로 본 한국인의 상징체계: 문제제기」, 최인학(저), 『기층문화 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징체계(상): 공간민속·정신민속』. 서울: 민속원, 1998.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파주: 사계절, 2000.
- 정의도, 『한국 고대 순가락 연구』. 파주: 경인문화사, 2014.
- 조홍윤, 『한국의 巫』. 서울: 정음사, 1983.
-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서울: 예전사, 1975.
- \_\_\_\_\_, 『韓國巫俗의 研究』. 성남: 아세아문화사, 1990.
-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최인학,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징체계(상·중·하)』. 서울: 민속원, 1998.
-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안산: 일지사, 2002.
- \_\_\_\_\_,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최주연, 『高麗銅鏡研究』. 서울: 학연문화사, 2021.
- 한국무속학회, 『서울곳의 이해』. 서울: 민속원, 2007.
- 한국종교민속연구회, 『종교와 의례공간』. 서울: 민속원, 2007.
- 渡辺素舟, 『東洋紋樣史』. 東京: 富山房, 1971.
- 李星明, 『唐代墓室壁畫研究』. 陝西: 陝西人民美術出版社, 2004.

### 3. 논문

- 고성훈,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제47호(2015), 114~146쪽.

- 권주영, 「조선후기 건물지 유적 출토 거울 연구」. 『한국중세고고학』 제8호, 2020, 107~143쪽.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와 민간신앙의 공존양상: 산신·칠성 신앙의 불교화」. 『불교학연구』 제61호, 2019, 75~104쪽.
-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진단학보』 제82호(1996), 1~34쪽.
- 김태곤, 「한국 샤머니즘의 정의: 샤머니즘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무속문화』. 서울: 박이정, 1998.
- 김현선,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민속학연구』 제12호, 2003, 139~169쪽.
- 림학성, 「조선후기 巫稅制度와 그 실태」. 『역사민속학』 제3호, 1993, 90~126쪽.
- 문중양, 「조선후기 서양 천문도의 전래와 신·고법 천문도의 절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4, 29~55쪽.
- 민정희, 「朝鮮前期 무당의 呼稱과 種類」. 『역사민속학』 제10호, 2000, 61~85쪽.
- 박민일, 「朝鮮別錢의 美學과 精神史」. 『강원문화연구』 제19집, 2000, 1~26쪽.
- 박진경, 「准提 修行儀軌와 儀式具로 제작된 銅鏡」. 『불교미술사학』 제24권, 2019, 147~174쪽.
- 손태도, 「조선 후기의 무속」. 『한국무속학』 제17집, 2008, 189~270쪽.
- \_\_\_\_\_, 「조선 후기 연희의 소통과 향유」.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3권(2014), 283~359쪽.
- 심중혁, 「예수회 중국 선교사들과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 『신학과철학』 제20호, 2012, 77~106쪽.
- 안현주·조우현, 「『巫黨來歷』의 巫堂 神格과 巫服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69권 제4호, 2019, 141~160쪽.
- 양종승, 「무당 귀물(鬼物) 연구: 『삼국유사』의 삼부인(三符印)과 무당의 거울·칼·방울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제22호(2001), 25~59쪽.
- \_\_\_\_\_, 「금성당 무속 유물의 형태와 상징성」. 『생활문화연구』 제24호, 2009, 67~101쪽.
- 양홍진, 「중국과 한국의 전통 천문도」. 『천문학논총』 제28권, 2013, 37~54쪽.
- 이능화, 「朝鮮巫俗考」. 『계명』 제19호, 1927, 1~85쪽.
- 이승일, 「고려시대 주전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지수·이경미,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육군 복식의 상징 문양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70권 제4호(2020), 1~19쪽.

- 이필영, 「조선 후기의 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 제53권 제4호, 1993, 3~39쪽.
- 임동권, 「무경의 계보」. 『한국무속학』 제3집, 한국무속학회, 2001, 137~141쪽.
- 엄기표,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제58호, 2016, 35~82쪽.
- 우주옥, 「高麗時代 線刻佛像鏡과 密敎儀式」. 『미술사학』 제24호, 2010, 7~38쪽.
- 정수희, 「고려시대 銅鏡과 불교문화」.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a.
- \_\_\_\_\_, 「고려 雙龍文鏡의 계보와 용도」. 『미술사연구』 제36호, 2019b, 97~132쪽.
- 정진희,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습합(道佛習合) 연구: 도선암 본 『태상현령복두  
본명연생진경』을 중심으로」. 『한국학』 통권 제154호, 2019, 87~117.
- 최문기, 「한국 무(巫)와 종교의 습합」. 『윤리연구』 제1권 제76호, 2010, 133~166쪽.
- 최선혜, 「조선후기 속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 사건」. 『역사학연구』 제50권, 2013, 121~161쪽.
- 최종성, 「조선 전기의 종교문화와 무속」. 『한국무속학』 제11집, 2006, 7~36쪽.
- 최주연, 「高麗時代 線刻佛像文鏡의 傳來와 製作要因」. 『문화사학』 제53호, 2020, 139~179쪽.
- 최진아, 「무구(巫具)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제10집, 2005, 314~358쪽.
- \_\_\_\_\_, 「천문의 상징 기호에 대한 이해: 무속의 상징물 명도를 중심으로」. 『인문과  
학연구』 제41권, 2020, 1~46쪽.
- 치등광·서윤경, 「거울과 환영: 唐代 銅鏡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24호, 2007, 39~61쪽.
- 하정숙, 「韓·日 銅鏡文化의 샤머니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홍태한, 「『무당내력』류 일본의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32호, 2016, 219~242쪽.
- 森浩一·松前健, 「鏡のもつ意味と機能」. 森浩一(編), 『日本古代文化の探求: 鏡』. 東京: 社會思想社, 1978.

#### 4. 웹사이트

- 국립민속박물관(<https://www.nfm.go.kr>).
-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
-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https://www.emuseum.go.kr>).
-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

## 국문초록

일월성신문경은 해, 달, 별 문양이 장식된 거울로 오늘날 무속의례의 무구 중 하나인 명도(明圖 혹은 明斗)라 불린다. 본 연구는 전세품인 90점의 일월성신문경을 모아 유형별로 분석해 등장 배경과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A유형은 해, 달, 별을 원문으로 표현하고 별자리를 선으로 잇는 천문도식 표현을 따른다. 등장 배경은 17세기의 소형 천문도와 길상문의 유행의 영향이며 무속이 국가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고 민간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B유형은 천문도식의 별자리 표현에서 벗어나 해와 달, 북두칠성으로 구성되면서 도식화된다. 무속의례의 공간이 임시적이고 개방적인 장소가 되면서 일상 공예품을 무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C유형은 19세기에 유입된 서양의 펜타그램(pentagram) 문양을 수용하여 별을 오각성문으로 표현하고 오늘날의 정형화된 일월성신문으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조선후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유리거울의 유행과 확산에 의해 금속제 거울이 점차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월성신문경이 새롭게 등장한 점은 무속의례의 연희화를 위한 것이다. 무속은 민간화되면서 가시적 효과를 위해 공연적 요소가 필요해졌고 다른 종교들의 의례 행위와 도구를 받아들이며 무단하게 융합했다. 불교와 도교의 종교 의례에서는 예로부터 '거울이 곧 신체(神體)'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동경을 사용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무속의례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일월성신문경 또한 명도(明圖)로 자리 잡으며 독특한 한국의 무구로 탄생하고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투고일 2023. 6. 20.

심사일 2023. 7. 21.

게재 확정일 2023. 8. 7.

주제어(keywords) 일월성신문경(The Mirror of Ilwolsongsinmun), 무속의례(shamanic ritual), 명도(Myeongdo), 천문도(astronomical chart), 연희(musical performance)

## Abstract

### P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rror of Ilwolsongsinmun in the Joseon Dynasty

**Kwon, Jooyoung**

The mirror of Ilwolsongsinmun is decorated with patterns of the sun, moon, and stars, and is today called Myeongdo, one of the tools of shamanism. This study focused on the background to its appearance and the process of change. Three types were identified after analyzing 90 remains, which are chartered products. Type A follows an astronomical representation that expresses the sun, moon, and stars in the original text and connects constellations with lines. The background to its appearance is the influence and prevalence of small astronomical charts and a decorative coin in the 17th century. Its appearance suggests that shamanism had started to deviate from the state's institutional sphere, lost its political function, and had become civilian. Type B is schematic, and deviates from the astronomical representation of constellations consisting of the sun, moon, and the Big Dipper. It is a phenomenon that appears in the process of using everyday crafts as tools of shamanism, where the space for shamanic rituals becomes a temporary and open place. Type C accepts the Western pentagram pattern introduced in the 19th century, expresses stars as pentagrams, and changes to today's standardized Ilwolsong Newspaper, and continues to this day.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tal mirrors gradually disappeared due to the growing trend of using new glass mirrors; nevertheless, the mirror of Ilwolsongsinmun appears newly to be used in the performance of shamanistic rituals. As shamanism was privatized, performance elements were needed for visible effects, and they were constantly fused by accepting ritual acts and tools from other religions. Metal mirrors have long been used in the religious rituals of Buddhism and Taoism, based on the idea that "mirrors are the body."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oday's highly developed shamanic rituals, the mirror of Ilwolsongsinmun has also become a tool of shamanism, and it is understood that it was conceived and developed as a unique Korean pattern and form.